

스포츠 종합

8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스포츠동아



일본여자배구 JT마블러스는 오랜 인연을 이어온 흥국생명명의 초청을 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16일부터 6박7일간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21일에는 흥국생명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경기를 치렀다. 사진제공 |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일본 여자배구)

용인에 전훈지 차린 JT마블러스 김연경과 인연이 맺은 합동훈련

흥국생명 연수원서 6박7일간 훈련·연습경기 김연경 “좋은 기억 많은 팀, 재밌게 경기했다”

일본여자배구 명문구단 JT마블러스는 16일부터 경기도 용인 흥국생명 연수원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다.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의 초청으로 내한해 6박7일간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꾸준히 이어지던 양 팀의 합동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 양 팀은 연습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점검하며 새 시즌을 준비했다. JT마블러스는 흥국생명과 3차례, 현대건설과 1차례 연습경기를 치른 뒤 22일 돌아갔다.

일본 오사카를 연고로 한 JT마블러스는 일본 V리그 우승 3회, 준우승 4회를 달성한 강호다. 특히 김연경(34·흥국생명)과 인연 때문에 국내에도 잘 알려진 구단이다. 2005년 흥국생명에 입단해 탁월한 기량으로 국내 무대를 평정한 김연경은 2009년부터 2시즌 동안 JT마블러스로 임대 이적해 해외무대를 밟았다. 2010~2011시즌에는 하위권의 JT마블러스를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주가를 높였다. 이후 튀르키예와 중국 리그에서 맹활약하며 세계적 스타로 우뚝 섰다.

21일 흥국생명 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연습경기에는 10여명의 취재진 및 에이전트가 모였다. 비시즌 연습경기에선 보기 드문 일이다. 김연경의 높은 인기는 물론이고 JT마블러스와 인연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연습경기였지만 실전을 방불케 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과 외국인선수 엘레나(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좌우 쌍포를 투입하는 등 국가대표를 제외한 베스트 멤버를 가동했다. 선수들의 목소리도 쩌렁쩌렁했다. 김연경도 크게 파이팅을 외치며 후배들을 독려했다. JT마블러스도 물러서지 않았다. 뒤지는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권순찬 흥국생명 감독이 “배울 점이 많은 훈련이었다. 특히 상대는 수비가 좋다”고 말할 정도로 JT마블러스의 수비력은 돋보였다.

11년 만에 전 소속팀을 만난 김연경의 마음은 남달랐다.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난 그는 “정말 인연이 깊다. 나의 첫 해외 진출팀이기도 하고, 창단 처음으로 우승을 일궈낸 팀”이라며 “초록 색깔 유니폼 자체가 아직까지 익숙하고, 너무 좋은 기억이 많아 재밌게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새 시즌 활약을 약속했다. 그는 “KOVO컵 대회 때보다는 확실히 몸 상태가 좋아졌다. 한 달 후 열리는 시즌에서는 100% 컨디션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10월 25일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2022~2023시즌 홈 개막전을 펼친다. 용인 | 최현길 기자 choi92@donga.com

남자농구 서울 삼성, 필리핀 포워드 데이비드 영입

남자프로농구 서울 삼성이 2022~2023시즌 아시아쿼터로 활용할 필리핀 국적의 포워드 크리스찬 데이비드(24·196.4cm)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버틀러 대학을 졸업한 데이비드는 안정적인 3점슛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뛰어난 운동능력을 바탕으로 속공 및 리바운드 가담도 좋은 포워드 자원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당초 필리핀 국적의 윌리엄 나바로를 영입할 계획이었지만, 이적동의를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향을 선회해 데이비드를 계약했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데이비드는 조만간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서울트레일런 내일 오전 7시30분 청와대에서 스타트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2022 서울트레일런'이 24일 개최된다. 인위적인 포장도로가 아닌 서울 도심 명산의 오솔길과 산길을 달리는 대회다. 10km, 30km, 버추얼 5km 등 3개 부문으로 펼쳐진다.



가을 숨결 느끼며 서울 명산을 뛰어라!

30km 등 3개 부문 비포장길 레이스 완주자에겐 내년 'UTMB' 참가 자격 참가비 기부로 발달장애 청년 지원도

“서울 도심의 오솔길·산길을 걷거나 달리며 600년 고도의 가을숨결을 느껴자.”

2022 서울트레일런 대회(한국도시가스협회 동아일보 공동주최)가 24일(토) 오전 7시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도시가스업체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한 도시가스 온런에 이어 첫 오프라인 대회로 치러지는 행사다.

●30km·10km·버추얼런 5km 등 3개 부문 이번 대회는 서울 도심의 명산을 걷고 달리는 트레일런 종목으로 펼쳐진다. 트레일런은 아스팔트, 트랙 등의 인위적으

로 포장된 지면이 아니라 오솔길, 산길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비포장길을 달리는 스포츠다.

참가부문은 트레일런 30km(누적상승고도 +1300m), 트레일런&워크 10km(누적상승고도 +400m) 오프라인 부문과 23~25일 사이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참가자가 원하는 산길 코스를 정해 5km 이상 달린 뒤 스마트폰 러닝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증하는 버추얼 부문 등이다.

트레일런 30km 부문은 분수광장을 출발해 경복궁 외곽을 돌아 삼청공원, 북악산, 인왕산을 경유하는 코스로 제한시간은 9시간이다. 트레일런&워크 10km 부문 역시 경복궁 외곽을 돌고 삼청동길, 한양도성, 북악산을 거쳐 도착지인 분수광장으로 끝나는 코스로 2시간30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 서울 도심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코스다.

이번 대회 완주자에게는 내년 UTMB(Ultra Trail du Mont-Blanc) 참가자 격이 주어진다. UTMB는 매년 유럽의 지붕 몽블랑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의 울

트라 마라톤 대회다.

●발달장애 청년 돕는 나눔레이스

푸르메재단과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따뜻한 나눔레이스로 열린다. 전국 34개 도시가스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푸르메소셜팀 기부를 마련했다. 발달장애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자발적 자립 기반인 푸르메소셜팀은 친환경 스마트 농장으로, 평범한 일상을 꾸꾸는 발달장애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카다. 서울트레일런 참가자의 온기를 모아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게 된다.

이외에도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더 많은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가스업계 사회공헌활동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 송재호 회장은 “지난해 이어 도시가스업계 최초로 국민참여형 오프라인 행사를 열게 됐다. 산을 걷고 달릴 수 있는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건

강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된다. 참가비 기부로 따뜻한 온정도 나눌 수 있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협회와 도시가스 회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국 행사로 성장해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회가 열리는 24일에는 청와대 앞, 경복궁 및 삼청동 일대 교통이 부분 통제된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주최: 한국도시가스협회 동아일보
기부처: 푸르메재단

※ 24일 열리는 이번 대회로 서울 종로구 청운동, 효자동, 삼청동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해머던지기 이윤철의 전성기는 ‘현재진행형’

70m 시대 열고 전국체전 18연패 파리올림픽 출전 목표로 담금질 자신의 韓 기록 73m77 경신 도전

20년 전 첫 한국기록 수립을 시작으로 무려 13번이나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 한국 남자 해머던지기의 70m 시대를 개척한 유일한 선수로서 자부심도 크다. 이윤철(40·음성군청)은 불혹의 나이에도 여전히 기록 경신과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

이윤철은 2019년부터 22일 현재까지 대한육상연맹 주관 대회에서 20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3년 만에 다시 70m대에 진입한 기세를 살려 자신의 한국기록(73m

77)을 다시 경신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그는 “시존 평균기록이 개인최고기록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훈련량을 늘려 연습과 실전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호성적의 원동력을 설명했다.

어린 시절 운동에 흥미가 없던 이윤철은 추진 행태로 전복체고에 진학했다. 그러나 한국체대 2학년 시절인 2003년 4월 64m 68을 던지며 한국기록을 경신하기 시작했다. 4년 뒤 전국실업선수권대회에선 70m 84를 던져 한국 남자 해머던지기의 70m 시대를 열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체전 18연패도 달성했다.

룡련의 비결에 대해 그는 “대학 진학 후 고교부대(당시 6.351kg·현 6kg)와 성인부



한국 남자 해머던지기의 간판 이윤철은 불혹의 나이에도 더 먼 곳을 바라본다. 자신의 한국 기록(73m 77)을 경신하고, 2024파리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육상연맹

대(7.260kg)의 해머 무게가 달라 적응하다 허리를 다쳤다. 당시 보강훈련에 눈을 뜨게 룬련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기록(84m86) 보유자인 무로후시 고지와 그의 아버지 무로후시 시게노부(이상 일본) 모두 세계적인 선수들이라 그들을 넘겠다는 일념이 강했다. 투척 동작도 2006년

쓰리런에서 포턴으로 바꾼 게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루마니아 창던지기 선수 세라피나 모리츠와 결혼한 무로후시 시게노부는 무로후시 고지-무로후시 유카 남매를 각각 2004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여자 해머던지기 일본기록(67m77) 보유자로 키워냈다. 이윤철도 2010년 전지훈련에서 무로후시 시게노부의 지도 하에 한 단계 성장했다.

그동안 이론 업적보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향한 아쉬움을 더 강조했다. 5번의 아시안게임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4위였다. 이윤철은 “2006도하아시안게임 결선 때 2번이나 한국기록을 경신했다. 해머가 그물에 맞고 날아간 6차시기 기록이 3위와 38cm 차이가 불과해 아쉬웠다”며 “40대가 됐지만 욕심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재민 기자

여자농구대표팀, 중국에 63점차 굴욕패

박지수·배혜운 등 이탈에 고전 여자농구월드컵 가시밭길 예상

여자농구국가대표팀이 2022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농구월드컵 첫 경기에서 중국에 치욕적 패배를 당했다. 높이의 한계

에 부딪혔다고는 하나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졸전이었다.

정성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2일 호주 시드니 슈퍼돔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초반부터 크게 밀린 끝에 중국에 44-107, 63점차로 대패했다. 한국은 23일 벨기에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

른다.

박지수, 배혜운 등 센터 자원들의 잇따른 이탈로 높이 싸움에서 열세가 예상됐던 대표팀은 김단비~박혜진~강이슬~양인영~진안으로 베스트5를 꾸렸다. 진안의 첫 2득점으로 산뜻하게 출발하는 듯했으나, 1쿼터 종료 4분여 전까지 1골도 추가하지 못한 채 2-16으로 크게 밀렸다. 1쿼터를 11-27로 마친 한국은 그 뒤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20-54, 34점

차로 뒤진 가운데 하프타임을 맞았다. 전열을 재정비하고 돌아왔지만, 중국의 파상공세에 밀린 한국은 3쿼터에 12점을 보낸 반면 26점을 내졌다.

큰 점수차로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중국을 상대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의심될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아 큰 실망감만 안겼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